범여주자들 '정체성' 논란 재점화

오충일 "孫발언 광주정신 훼손 아니다"

鄭 "당 대표가 특정후보 두둔 안될 말"

손학규 전지사의 '광주발언'을 계기로 촉발된 범여권 대선주자들 사이의 정체성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오충일 대표가 7일 오전 라디오에 나와 손 전지사의 광주발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다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오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백지연의 전망대'에 출연, "손 전지사의 광주발언은 광주 기념행사나 추념행사가 광주 안의 일이 아니라 광주 밖으로 확대해 극복하자는 의미이지, 그 정신과 뜻을 훼손하자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대표는 이어 "손 전지사가 젊어서부터 쭉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한때 한나라당에 들어가 있기는 했어도 이 사람은 인권과 민주화, 남북화해, 복지와 같은 신념을 젊어서부터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이 전해지자 손 전지사 캠프는 반색을 하고 나왔다. 손 전지사측 배종호 대변인은 "광주정신은 세계로 미래로 향해야 한다는 손 전지사의 광주 발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말씀 하신 것"이라며 "당 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 분명하게 정리한 만큼 다른 분들도 대표의 말씀에 따를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른 주자 캠프에서는 드러내놓지는 않지만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오 대표가 손 전지사를 노골적으로 편든 것은 아니지만 당 대표가 논란의 중심이 돼있는 손 전지사의 발언을 '해명'해주는 듯한 입장을 보인 것이 마뜩지 않다는 표정들이다.

특히 그러잖아도 신당이 '손학규당'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던 주자들은 손 전지사를 겨냥한 공세의 끈을 한층 더 죄는 분위기다.

정동영 전의장측은 "덕담으로 한 얘기일지라도 당 대표가 특정 후보를 두둔하는 대변인 역할을 하는 인상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지사를 향해 '자존심을 훼손하는 후보는 필패'라며 직격탄을 날렸던 천정배 의원측은 "손 전지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해찬 전 총리측의 양승조 의원은 "광주발언은 5·18 광주항쟁을 바라보는 손 전지사의 시각 자체가 잘못돼있고 민주평화세력 개혁세력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오 대표측은 "순수한 취지의 발언"이라고 해명하고 나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손 전지사를 겨냥한 다른 주자들의 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해찬 전 총리의 외곽 지원조직인 '광주·전남 광장' 발대식이 7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이 전 총리(사진 가운데)가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명숙, 이해찬·유시민에 "단일화 하자"

李 "단일화 지지" 柳 "열린자세로 협의"

범여권 대선주자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7일 "평화개혁세력의 정통성 있는 단일후보를 만들어 승리의 전기를 마련하라는 강력한 요구가 당심이자 민심"이라며 우리당 소속 친노(親盧) 성향 대선주자인 이해찬, 유시민 의원에게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제 우리 하나가 되자. 우리가 상호간의 경쟁으로 서로를 갉아먹고 힘을 분산, 약화만 시켜서는 대선 승리의 불씨를 살려낼 수 없다"면서 "부패 수구세력인 한나라당에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대안을 만들기 위해 (3자후보 단일화를) 긴급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2002년 후보 단일화 때처럼 여론조사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만나 가급적 조속한 시일안에 단일후보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제의에 동의하는 우리당의 다른 예비후보들이 있으면 함께 하겠다"면서 다른 친노 주자에게도 동참을 권유했다.

이 같은 제안은 친노주자들이 난립해 지지층이 분산되고 있는 만큼 단일화를 통해 친노진영의 세를 한곳으로 규합, 경선승리를 도모하자는 차원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전 총리는 이날 광주지역 기자들과 만나 "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경선을 잘 치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정통성있는 평화민주개혁세력이 당선될 수 있는 후보 단일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 전 총리의 충정을 존중해 협의해보겠다. 조만간 한 전 총리를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한 전 총리의 제안은 깊은 고뇌와 충정의 소산이다. 아직 출마를 선언하지 않았고 우리당에는 비슷한 정책과 노선을 가진 다른 여러 후보들이 있는 만큼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대통합과 국민경선 과정에서 정당하고 필요한 협력과 연대를 이루기 위해 열린 자세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올 대선 진실-거짓 세력 대결"

이해찬 지지조직 '광주·전남 광장' 어제 발족

친노 세력의 대표적 대권 후보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지지조직인 '광주·전남 광장'이 7일 오후 공식 발족했다.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회원 2천여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으며 민주주의 세력을 결집해 내는데 든든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이날 초청연사로 나선 이 전 총리는 강연을 통해 "올해 대선은 진실한 세력과 거짓된 세력의 대결"이라며 "지난 50년간 잃어버렸던 자유와 인권, 정경유착, 관치금융, 심지어 목숨까지도 지난 10년의 민주정부에서 바로 세워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의 성과를 잘 발전시키고 국민과 합의하지 못한 잘못한 일은 철저하게 반성해서, 새로운 10년, 희망찬 60년을 이끌어 가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 전 총리는 윤공희 대주교를 면담, 전주 이씨 대동종약원과 5·18 기념재단 방문 등 일정을 소화했으며 발족식 이후에는 지지자들과 함께 호프 미팅을 가진 후 여수로 이동했다.

그는 또 8일에는 여수엑스포 유치 관계자, 순천지역 상공인, 순천지역 목회자와 잇따라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광주·전남 광장을 이끄는 사무총장에는 이형석 전 광주시의회 의장, 사무처장에는 이상걸씨가 각각 선임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목포·해남 중소형 선박건조 특화해야"

대한조선 방문 강운태 전 장관

열린우리당 소속 강운태 전 장관은 7일 해남 대한조선을 방문, "대형선박 건조 위주의 울산·거제 등 동남해안권과는 다르게 목포와 신안·해남 등 서남해안권은 중소형 선박 건조로 특화해야 하며, 우리 조선산업은 이제 목포와 울산이라는 투톱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 장관은 이날 해남의 대한조선을 방문한 자리에서 "중소형 선박 시장은 대형조선 시장과 중첩되지 않고 비경쟁적이므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전남의 서남해안은 깊은 수심, 약한 조류, 그리고 섬으로 둘러싸인 천연방파제가 형성되어 조선산업의 최적지"라며 "현재 이 지역에서 추진 중인 '조선산업 클러스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는 2010년까지 조선산업 생산 증가 규모는 1천559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2천136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대선행보를 계속하고 있는 강운태 전 내무부 장관이 7일 해남 대한조선을 방문, 관계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친노주자 김두관 민주신당 합류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7일 친노성향 대선주자로는 처음으로 열린우리당을 탈당, 대통합민주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이 국민의 뜻"이라며 "저의 모든 것을 버리고 맨손으로 호랑이를 잡기 위해 호랑이굴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반쪽짜리 대통합이 돼서는 결코 안되며 조건 없는 대통합을 실현해야 한다"며 "저의 결단이 대통합의 교착상태를 타개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잇는 제3기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하는 것만이 진정한 참여정부의 계승이고 참여정부의 성공이며, 대개혁을 완수하는 것"이라면서 "친노·비노·반노의 좁은 틀에 머물지 말고 시대적 소명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민주신당 참여는 우리당의 민주신당 합류 논의에 촉매제로 작용할 뿐 아니라 최근 일고 있는 친노세력의 신당파 및 사수파 양분 조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孫, 국중당과 연대 희망

손학규 전 경기지사의 중소기업정책특보인 정국교 범여권 대통합민주신당 중앙위원은 7일 "국민중심당과 연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정 중앙위원은 이날 오후 대전서 서구 둔산동 선진평화연대 대전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는 19일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끝나면 국민중심당에 입장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중심당 심대평 대표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